

# 圖協消息

## 技術委員會會議錄

日時 1962年 5月 14日 午後 3時40分

場所 圖協事務局

參席者 任鍾淳, 千惠鳳, 白麟, 劉永珉,  
(出席順) 朴熙永 李鍾文 (事務局)

- 案件 1. 經過報告(前會議錄通過)  
2. 62年度 事業選定(重點의 으로)  
3. 技術委員會 分委選定(事務分擔)  
4. 今年度 事業推進의 具體的인 方法  
5. 豫算額의 分割 및 執行方法  
6. 其他事項

司會. 白麟(技術委員會 委員長) 會議成員  
與否에 對하여 確認한바 金京一委員은  
事前에 不參을 通報함으로써 表決權을  
委任하였고 또 柳東烈委員은 白麟氏에  
委任하였으니 現在 技術委員 全員 12人  
中 過半數가 되니까 成立됨으로.

開會宣言과 同時에 技術委員會가 여  
태까지는 그 實蹟에 있어서 有名無實  
하였음을 率直히 反省하고 今年에는 豫  
算이 적으나마 이를 效果의 으로 使用하  
여 當面한 우리나라 館界의 緊急한 技  
術委員會의 事業들을 推進해야만 할것  
이라는 要旨의 發言.

案件 1. 去年度 會議錄 朗讀

昨年 會議錄을 參考로 하되 客觀的인  
情勢의 變動으로 效率的인 새로운 決定  
이 要하다는 千惠鳳氏의 發言에 全員  
合議함과 同時에 去年度 會議錄을 修正

없이 通過시킴.

李鍾文. 不遠間 圖書館法이 通過되리라 보  
는데 이法이 通過되면 이에 따라 全國  
에 많은 圖書館이 新設될 것이다. 于先  
時急한것이 基礎的인 技術面의 解決이  
큰 問題라고 생각된다. 이런點 참작하  
여서 의논하여 주시기를 事務局 立場에  
서 建議함.

司會. 案件 2에 對하여 물은 바,  
千惠鳳. “62年度 事業計劃書”에 여러가지  
事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時急한것 또  
實蹟을 올릴 수 있는 事業 두세種만 選  
定하도록 하자고 提議.

朴熙永. 事業을 하는데는 事業選定보다  
技術委員會 委員을 再構成해야 할것이  
더 앞서야 할 問題라고 생각한다. 再構  
成理由으로써는 後進들을 더 많이 登用하  
고 둘째로 事業이 많으니까 人員을 더  
늘어야 될줄 안다. 여기 똥인 技術委員  
들은 事實上 各自가 바쁜사람들이니까  
여태까지 일의 不進理由의 하나라고 생  
각한다.

司會. 朴熙永氏의 意見에 贊同을 하나 于  
先 現在의 委員으로 討議를 하고 委員의  
擴張이 必要하면 그때 檢討해 보는 것  
이 어떤가?

朴熙永. 實行委員과 諮問委員을 두는 것  
이 어떨런지, 우리는 諮問委員으로 하고  
일은 後進委員들에게 맡기도록 생각한

것이다.

千惠鳳. 日本이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 형편으로서 꼭 必要한 몇名만 增員할 수도 있을 것이다.

李鍾文. 今年에는 豫算上으로 또 現在 館界의 事情으로 보아 于先 基礎的인 事業을 最底線까지라도 올려놓은 然後에 朴熙永氏의 意見대로 할 수도 있다고 提議한바 이에 모두 贊成.

司會. 62年度 事業選定(案件 2)에 對하여 事業計劃書에는 6種이 選定되어 있으나 그 中에서 目錄規定 分類表 用語集 세가지 中에서 擇하도록 하자고 提議한바.

千惠鳳. 目錄規定과 用語集改正을 今年 事業으로 採擇하도록 하자고 提議.

朴熙永. 千惠鳳氏의 提議에 贊同한다. 用語集改正은 定義程度는 넣어서 改正하여야 될줄 안다.

任鍾淳. 事業計劃書가운데 分類表問題가 挿入되어 있는데 이 分類表를 將次 만들 것이라면 事務節次(圖書 整理節次上)로 박서 分類表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본다.

劉永珪. 分類表, 目錄規定 用語集이 重要하다고 저도 생각한다. 그러나 重點의 事業을 採擇한다면 亦是 다 못할 것을 定하기 보담 分類表는 D. D. C번역판이 있으니 또 일의 順序를 歷史의 으로 볼때도 目錄이 앞서 갈것이 아닌가.

司會. 目錄規定은 現在 어느程度 되어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例를 넣어 형식 區分만 原稿를 完成해 나가는 方向으로 하고 用語集은 定義를 넣어서 改正하는 것, 이 두가지 事業을 今年事業으로 定하자는데 모두 合議함.

李鍾文. 圖協이 國庫補助로 數年間 運營되어 왔는데 專門職團體로서 技術問題를 다룬 業績이 貧弱했다. 政府補助란 政府自體가 해야 할일을 民間에게 代身시킨것인데 本協會의 事務도 政府 施政方針이 보다 낮은 것이라면 따라야 할 것이다. 政府가 모든 業務를 計劃的인 研究와 併行하는 限 우리도 徹底한 計劃事務를 推進시키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이다. 計劃을 月別進度表에 依據推進 하겠음을 諒解하기 바란다. 이點 우리 的 責任이 크다고 느낀다.

案件 3, 4, 를 同時에 討議하되,

朴熙永. 對政府接觸上 일의 進度等을 考慮하는 面에서 事務局長과 그리고 技術委員會를 代表해서 白麟氏 두 분이 事務分擔 및 進度表를 作成 하는 것이 어딘가?

司會. 일의 早速한 推進을 爲하여 이자리에서 各分委員會를 定하자고 말한바. 모두 이에 合議함.

用語集改正分委에는, 任鍾淳, 李春熙, 李喆珪, 金京一, 朴熙永 諸氏.

目錄規定分委에는, 千惠鳳, 尹炳泰, 劉永珪, 張一世, 白麟 諸氏 등이

各各 擔當키로 合議하고 各分科委員會에 事業을 9月까지 完了할 것을 原則으로하고 早速한 推進을 爲하여 用語分委에서 朴熙永氏가 目錄規定分委에는 白麟氏가 責任을 맡아 5月 18日(金)까지 各己 事業의 月別進度計劃書를 作成하여 事務局에 提出키로 合議함.

李鍾文. 圖書館法이 通過되려는 이에 따라 施行細則의 作成을 協會側에서 여러 가지 研究 및 檢討事項 또 其他 다른 사업등 일이 많을 것으로 豫想되는데 現 技術委員中에서 他委員으로 兼任이

可能한가에 對해 이 자리에서 미리 討議해 볼 問題라고 생각한다. 3, 4種을 兼任함은 個人的 能力面에서도 無理가 아니겠는가.

司會. 原則은 두가지 일에 參加하지 않는 것으로 定해 두고 그 當時 形便에 따라 代替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고 提議한바 全員 이에 合議.

案件 5, 에 對해서는 現在 豫算上으로 560,000환이 되어 있으나, 實行豫算

400,000환 限度內에서 配當은 그때 그때 일의 推進 및 실적에 依據 策定하여 各分科委員會에 支出토록 滿場一致로 可決.

案件 6, 其他事項.

白麟. 委員長이 其間委員長으로서 두드러진 業績을 못 올렸음을 自責하며 委員長職의 辭意를 表明하였으나 全員 反對하여 留任키로 決定됨. (6時 20分 閉會.)

## 編輯委員會會議錄

日 時 5月4日(金) 午後 6時

場 所 事務局

參席者 金世翊, 朴熙永, 張一世, 李鍾文,  
(無順)

經過報告 表紙 색깔 연록으로 定하였음  
과 廣告契約關係를 報告

編輯方針

李鍾文: Library Trends Library Quaterly는 各己 特性을 가지고 있다. 卽 Library Trends는 每卷마다 特定分野를 다루는 學術誌로서 意義가 있으며 Library quaterly는 主로 史學的인 問題를 다루는 點에서 美國 圖書館學界에 雙壁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도협월보」는 이 두 잡지의 性格을 다 兼하여 1年分の 記事內容을 計劃하여서 어느 달에는 어느 分野의 特輯號로 할 것인가 미리 計劃하는 것이 어떤가? 提議한바 그렇게 하도록 努力하자고 合議.

張一世: 지금까지의 月報는 不得已한 事情으로 그러 하였지만 어찌까지나 全會員을 中心으로한 機關紙가 되어야 할 줄로 안다. 그런面에서 長期的인 論文의 掲載는 좀 考慮해야만 될 줄 믿는다.

朴熙永: 앞으로는 翻譯物의 記事를 하나씩 실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한바 모두가 찬성 하며 어찌까지나 全體圖書館人들에게 參考될 論題를 選擇하여 事전에 委員會의 協議하여 掲載토록 合議.

金世翊: 그로부터 編輯委員들이 編輯을 擔當하고는 있지만 事務局에서 事전에 article을 定하여 委員들에게 承認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고 補充說明.

張一世: 月報의 너무도 딱딱한 맛을 없애기 爲하여 隨筆 한편쯤 실도록 하자고 提議한바 會員들이 쓴 隨筆가운데 可能的 限 圖書館과 關聯되는 隨筆을 실도

록 合議.

朴熙永 : 外國소식을 可能한데로 많이 실  
었으면 하고 提議한바 事務局에서 外  
國에 있는 會員들에게 原稿및 소식등의  
請託을 하도록 하기로 合議.

李鍾文 : 版權紙의 名儀를 바꾸어야 할 것  
인지? 이의 決定을 提議한바 여러가지

議論끝에 編輯兼 發行人을 韓國圖書館  
協會(團體名儀)로 할 수 없는지 알아보  
고 萬一 卽個人的 이름이 必要하다면  
會長名儀로 바꾸도록 하자고 合議함.

4月號의 目次順位를 決定하고 閉會(7時  
40分)

## 事務局日誌

4. 12. Mr. Croslin(Pea-body), 金京一(京  
畿中高校司書教師), 嚴大燮(慶州市  
立圖書館長) 來局.
4. 14. 第3次 定例理事會
4. 17. 閱會長과 Dr. Badr Kasme(UNE  
SCO)來局
4. 18. 南瑛祐(徽文中高校) 來局
4. 22. 職員會議(事務의 分擔및 研究)
4. 23. 車駿日(서울農業大), Mr. Croslin  
(Pea-body) 來局
4. 25. 李基俊(Southern California College  
Head Librarian) 來局.
4. 25. 李春熙(成均館大) 來局
4. 26. 鄭箕澤(陸士圖書館長) 新任人事次  
來局.
4. 27. 金仁遠(仁川市立) 來局
4. 28. Winchell 女史의 Frick 女史의 來  
韓환영 Reception을 國立國樂院에  
서 KLA가 主催(國內外人事 60餘

名 參席)

4. 30. 崔震武(海士圖書館長), 金相悅(Pea  
body) 李喜明(서울工業高等學校教  
師) 來局.
5. 1. 金容大(普成高校司書教師) 來局
5. 3. 5·16 紀念圖書展示會 計劃關係로  
該當大學代表와 文教部 文藝局長室  
에서 會合.
5. 3. 金仁遠(仁川市立) 來局
5. 4. 編輯委員會  
張一世(梨大), 金世翊(梨大), 朴熙  
永(外大) 來局
5. 7. 交換圖書關係로 仁川서 來電
5. 8. 仁川 張仁植館長과 長距離電話  
(來日 文教部와 連席會議關係로)  
朴昌圭(國學大), 金禮鎬(國學大)  
來局
5. 9. 文教部에서 協會側과 文教部側과  
圖書館法에 對해서 連席會議를 가  
집.  
張仁植(仁川市立), 朴熙永(外大),  
明在暉(延大), 李鳳順(梨大) 來局
5. 10. 서울大圖書館 張之兌 吊花 獻呈  
李連輝(坡州郡立) 來局